

# 화순, 무등산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 실마리 찾나

### 무등산국립공원 도로 개설 5년 갈등

### 구복규 군수,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 도로개설 필요성·마을 피해 최소화 등 논의

### 내년 1월 중 2차 간담회 개최 예정

5년 동안 중단된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전남 화순군의 소통행정으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순군이 지난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17년 무등산국립공원과 화순군이 위·수탁시행 협약을 체결, 노선 계획을 선정 중에 군과 마을 주민과의 의견충돌 후 현

제까지 사업이 중단돼 있었다. 이날 간담회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자리였던 사업의 추진 여부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무등산국립공원 업무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10여 명은 중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수만3리 중지마을이 무등산장봉대로 올라가는 최적의 등산로이며, 도로가 개설되면 무등산 탐방객의 유치는 물론 주민 편의 향상과 마을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도로 개설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과 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며 "마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식했지만 마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내년 1월 중 2

차 간담회를 열어 무등산국립공원측의 전반적인 공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로노선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심분 이해하며 서로 충분히 소통해 애로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말했다.

【화순=주홍현 기자

### 목포사랑상품권, 내년 2월부터

### 모바일로 구매·결제 가능

목포사랑상품권이 내년 2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구매·결제할 수 있게 된다.

목포시는 간편결제 시스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발행 중인 지류형·카드형 상품권에 모바일(QR결제형) 상품권을 추가해 결제 방식을 다양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모바일 상품권 시행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앱에서 상품권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들은 결제 수수료가 없어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앱 chak(착)'을 통해 구매와 결제가 가능하다. 연회비가 없으며 QR키트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가맹점은 앱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구매한도는 개인당 월 30만 원으로 6%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발행 규모는 연간 150억 원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 광양교육청, 마을축제

### 용강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광양용강중학교에서 용강 지역민과 광양용강초, 광양마로초, 광양용강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용강마을교육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했다. 1부 공연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당 축제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2부 부스에서는 먹거리나눔과 판매, 아나바다장터가 운영됐다. 마지막으로 김제동의 강연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간의 소통'에 대한 공감토크를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필성 용강마을교육공동체 대표는 "이번 행사가 있기까지 기관과 단체의 대표들이 협의해 진행했고 각 단체별로 역할을 나누어 부스운영, 공연, 학생 인솔지도 등에 도움을 주었다"며 "특히, 많은 용강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으며 앞으로도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계준 광양교육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해서 살기 좋은 용강마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 무안, 전남 일자리 한마당 3개 분야 표창 수상 쾌거

### 일자리창출 최우수상·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투자유치 장려상 수상

무안군은 13일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 3개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 전남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와 관련한 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 등 3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에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무안군은 이번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최우수상,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상, 투자유치 장려상 등 모든 분야에서 수상했고, 전 분야 수상 시·군은 무안군과 영광군이 유일하며,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작년엔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무안군은 지난 1년간 고용지표 및 예산,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일자리 지원의 정량평가와, 우수 일자리 시책,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협치) 협력의 정성평가로 구성된 총 7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분야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통시장 소평환경 변화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 상권회복 관련 조례제정,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도자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무안도자산업특구 지정,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통한 물가안

정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장려상을 받은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올 한해 1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총 투자금액은 3910억원으로 고용 창출 효과는 534명으로 추산된다.

김산 군수는 "우리군 공직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군정에 이바지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업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각 분야 수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발전해 나가는 무안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무안=백태연 기자

# 완도호랑가시나무 길, 산림청 주관 '모범 도시 숲' 인증

### 지역 고유 수종 활용, 가로 경관 조성 노력 높이 평가



완도군의 '완도호랑가시나무 길'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모범 도시 숲'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 도시 숲' 인증은 지난해 6월 「도시 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련 법률 시행 후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도시 기후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도시 숲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과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은 지난 9월 도시 숲의 구

모·적합성·안전성 등 운영 관리 평가인 서류 심사 후 조정 관련 기술인, 도시 숲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현장 심사를 받았다.

평가단에서는 지역 고유 수종의 활용 및 홍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군의 세심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수종으로 호랑가시나무와 감나무의 자연 교잡종이다.

완도에서 처음 발견돼 완도의 지명이 됐으며, 겨우내 짙은 녹색 잎과 빨간 열매는 관상 가치가 높다.

이에 군은 국도 77호선 일원, 군 초입 도로 2km 구간(장보교마루-임목교차로) 중앙 분리대에 완도호랑가시나무를 심어 '완도호랑가시나무길'을 조성하고, 나무 사이에 계절마다 꽃 화분을 교체해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 영암군의회, 농민·농협·RPC 쌀값 폭락 지원 큰 성과 거둬

### 쌀값 하락 농협 손실·농민 수매장려금 지원

영암군의회는 지난 7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부터 쌀값 폭락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농민·농협(RPC)에 예산을 지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13일 밝혔다.

제295회 2차 정례회 기간(12.8.제3차 본회의)중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RPC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쌀 가격안정 경영지원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 2021년산 생산비 전량 매입 후 큰 폭의 시세 하락으로 인한 재정 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협(RPC)에 급원 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쌀값 폭락으로 농민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2023년 본예산에 39억원을 편성, 지역농협별 권장품종을 계약 재배해 농협에 수매한 실적을 근거로 수매출하장려금을 130만포(3천원, 40kg)에 지원하여 쌀 가격안정과 벼농업 단입화 조기 정착 기반을 마련했다. 강찬원 의장은 "농협이 지역쌀 전

# 강진, 예산 7000억 시대 '눈앞'

### 당초 예산 4411억원 53% 늘어난 6756억 추경 편성

강진군이 예산 70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제5회 추가경정예산 6756억 원(일반회계 6544억 원, 특별회계 212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4회 추경 예산보다 5.98%, 382억 원(일반회계 379억 원, 기타특별회계 3억 원) 증액됐으며, 올해 당초예산 4411억 원 대비 53.1%가 늘어난 금액으로 70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부터 확정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예산을 확보한 결과물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223억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원, 전년도이월금 10억 원 등 세입 오차 최소화를 위해 추계치를 검토하고 정리해 편성했다.

특별교부세는 33억 원으로 백운 등 원립 전시간 주변정비사업 8억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 원, (구)특리교 보수·보강사업 11억 원, 강진읍~군동면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4억 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사업 5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18억 원,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 등 의무적인 경비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최소화해 편성했다.

그동안 결산검사때 지적되어 왔던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연말까지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내년 결산검사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진행 여부와 집행액을 확인하는 등 부처 간 검토와 확인을 거쳐 사업비를 조정했다.

군 관계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낙찰차액분도 과감히 삭감하고 기준인건비도 12월 말까지 집행에 상응한 제외하고 삭감하는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밀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 광양읍 '농촌 협약' 공모사업 설명회

### 1차 이장회의 개최... 청정전남 으뜸마을 현판 전달

광양시 광양읍은 지난 9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김중호 읍장의 주재로 68개리 이장남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차 이장회의를 열어 시정 주요 현안과 각종 홍보사항 안내, 마을별 건의사항 수렴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접수 ▲무인 민원 발급창구 제 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안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마감 신청 ▲산불방지 예방 홍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 안내 등을 비롯한 각종 시·읍정 현안사항을 소관 과장이 설명했다.

이장회의를 주재한 김중호 읍장은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광양읍 19개 마을) 중 '호북마을'과 '점동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에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것을 강조했다. 경로당 개보수 물품 지원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사천



예방과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무단 소각 단속과 마을방송 홍보 등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장회의는 ▲2022.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우수마을(호북마을, 점동마을) 현판 전달식 ▲광양읍장 인사 말씀 ▲시정 주요 시책 설명 ▲광양읍장 당부 말씀 ▲(교통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 ▲(건설과, 행복한도시농촌연구원) '농촌 협약' 공모사업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장회의에 이어 광양시 교통과는 도심권 확장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화 및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 노선체계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광양시 건설과와 행복한도시농촌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이어졌다. 【광양=조순희 기자

#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입주작가 플랫폼 연계 줄이어

### 이달에는 이해주 작가 데뷔작 선배

순천글로벌웹툰센터 입주작가들의 등단과 작품 연계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11월 김수현 작가가 네이버웹툰에 '끈'을 연재한데 이어, 12월에는 이해주 작가(필명 '매리')가 카카오편에서 데뷔작 '배우수업' 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작가가 그린 작품 '끈'은 고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고향 친구들이 검사, 형사, 목격자로 얽히는 오컬트 미스터리 스릴러물로 '윤선생' 작가가 각색했다.

이해주 작가의 데뷔작 '배우수업'은 웹소설 원작 웹툰으로, 신인 영화 배우와 결혼을 앞둔 재벌 3세간의 밀고 당기는 계약 연애 이야기를 그

린 작품이다. 원작은 '도개비' 작가의 동명 소설 '배우수업'이며, 웹툰에서는 이해주 작가가 각색과 그림을 모두 맡았다.

순천글로벌웹툰센터는 지역 웹툰작가와 예비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로써 전체 3층 규모에 입주작가실, 입주기업실, 웹툰교육실, 만화도서관을 갖추고 창작공간 지원, 창작 지원, 웹툰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3층 입주작가실에는 11개 입주실에 15명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작가들은 웹툰과 함께 캐릭터 개발·북 디자인·웹툰 굿즈 제작·지역 특화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순천=조순희 기자